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새로 찾은 겨레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현장

■ 겨레의 창

남북 문화교류,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텔레비전에는 남북한의 군사 훈련 소식을 전하는 장면들이 '전쟁 영화처럼 흘러넘친다. 하루는 B-2 스텔스 전폭기가 미국에서 한 달음에 날아와 폭격 훈련을 한 후 우리 땅엔 착륙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귀환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시위하듯 전파를 뒀는가 하면, 하루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뜬금없이 새벽 시간에 미사일 부대에 '공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화면이 방송을 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방송 매체는 연일 실제 군사 행동보다 더 험한 '말의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공격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점점 더 험악해지는 데는 상대에게 위협을 과장하여 보여 줌으로써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지속성과 수위로 보아 통상적인 힘겨루기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전문이 감도는 한반도 상황의 저변에 '북한 핵'이라는 '강력한 폭발물'이 내장되어 있다고 보면, 최악의 군사적 충돌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남북한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남북 문화교류'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년센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남북한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대결 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면 '닥치고 전쟁'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북 문화교류에 대해 어떤 미래지향적 제안을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막힐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구체적 제안보다는 저간의 추진 현황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분단 이후 공식적인 남북 문화교류의 첫 출발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시 이루어진 남북 공연 단체의 교환공연이다. 그런데 분단 이전 공유자산인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첫 만남'은 기대와 달리 문화적 이질성만 확인하고 말았다. 공연이 끝난 후 남북한 예술계에서는 상대 예술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전통예술마저 체제 우월성 경쟁에 이용되었던 아픈 장면이었다.

1980년대 말에는 세계사적 냉전구조 해체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북방정책'을 기조로 한 화해·협력의 노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공연, 전시 등 남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한 화해 협력의 분위기 조성 노력이 선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1990년대 중반 북한 '핵문제'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적대적 대결관계로 회귀하였다.

이후 국민의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이 있기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이 전개되었다. 다시 한 번 문화교류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붓물 터지듯 남북 문화교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남북 문화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고, 남한 사업자 사이의 과당 경쟁 등으로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남북 문화교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방식의 장기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새겨볼 만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민족 공유자산인 우리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튼튼한 토양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국어학자들 사이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을 편찬하기까지 수년간을 지속하는 장기형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더욱이 여야 합의에 의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되어 사업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고질인 '남남갈등'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이질화된 남북한 언어의 공통 기반의 회복은 물론 통일 이후 언어 통일을 향한 실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남북 문화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도 이들 장기형 프로젝트들은 지속되었고, 중단된 남북 문화교류의 명맥을 이어 주었다. 영통사와 신계사 복원 불사는 2007년 이전에 이미 완료된 사업이지만, 2010년 5.24조치 이후에도 남북 불교도 공동 법회 등을 이어가는 발판이 되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사이의 신뢰의 회복과 균형 잡힌 대북 사업의 추진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조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먼저 신뢰를 만들기 위한 선행 조치를 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는 정세 속에서 신뢰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 문화교류야말로 지금의 교착된 상황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나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은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기존 사업의 재개와 복원을 통해 낮은 단계의 신뢰를 쌓은 후, 점점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쟁 분위기의 한켠에서는 남쪽에서부터 꽃 소식이 올라오고 있다. 유채꽃, 매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남녘에서 북상중인 '개화 전선'을 따라 온 산하에 진달래가 피어날 때쯤이면, 꽃 소식과 함께 한반도에 전문이 걷히고, 화해와 협력의 꽃길에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그 꽃길 위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바퀴도 힘차게 굴러가기를 기대해 본다.

■ 우리말 돋보기

백석(1912~1995) 시어 몇 가지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백석시는 우리 현대시의 한 고전이다.

백석시의 해설과 어휘 풀이를 보인 논문과 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백석의 주요 시편은 주로 1930년대 작품들이며, 그 시어에는 출신 지역인 평북(정주) 일대의 토박이말이 더러 있다. 그 토박이말 시어 중에는 오늘날 파악하기 어려운 말도 없지 않다. 원본(초간본) 또는 정본으로 알려진 백석 시집들(아래 문헌)에서 그 동안 밝혀 온 시어의 풀이 가운데 다시 짚어봐야 할 어휘가 있어 열은 생각이나마 펴보려 한다.

원본(초간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일부 현행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보인다.

[백석시에 관한 문헌]

- 이동순: 백석 시전집(부록: 낱말 풀이), 창비, 1987.
- 김학동: 백석 전집, 새문사, 1990.
- 송준: 백석 시전집(부록: 시어 사전 외), 학영사, 1995.
- 김재용 엮음: (증보판) 백석 전집, 실천문학, 2007.
- 고형진 엮음: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 이승원: 백석을 만나다 ---백석 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갓사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사슴, 1936, 1, 20.)

위 인용문은 모닥불을 쪼이는 여러 대상을 열거한 표현이다.

‘갓사돈’을 ‘갓사돈’의 잘못으로 보고 ‘새 사돈, 새사돈’이라 풀이하였다.

‘재당’은 ‘재장(齋長)’의 평안도식 발음으로 보인다. 성균관이나 향교 같은 데에서 생활하던 유생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초시(初試)’는 과거의 첫 시험에 급제한 사람.

‘문장(門長)’은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위인 사람.

‘더부살이 아이’는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지내면서 일을 해주는 아이.

‘사돈(查頓)’은 만주어 ‘사돈(sadun)’의 취음이다. 취음 한자는 어원과 관계가 없다.

열거 대상 가운데 ‘나그네와 주인’, ‘할아버지와 손자’, ‘큰개와 강아지’는 맞섬말(대칭어)의 짝이다. ‘재당과 초시’, ‘문장(門長) 늙은이와 더부살이 아이’는 약간 격이 다른 대칭어로 볼 수 있겠다. ‘새사위와 갓사돈’의 경우는 ‘갓사돈’을 ‘갓사돈’으로 보면 ‘새사위와 새사돈’으로 대칭된다. ‘붓장사와 땀쟁이’는 대칭어로 관련 지을 수 없고.

백석은 왜 ‘새사위’와 같이 ‘새사돈’이라 하지 않고 ‘갓사돈’이라 했을까? ‘갓사돈’은 ‘갓사돈’을 잘못 적은 것일까?

백석은 글쓰기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지켜 쓰지 않았다 해도 그의 시에 ‘갓’과 ‘갓-’은 가려서(구별해) 썼다. 1주 아래 보기에 출전 제목은 생략함. 괄호 안 표기는 필자가 넣음.

갓, 샛갓, 갓진창, 갓신창(갓신창), 갓기도(갓기도) 하다, 갓고(갓고),

우리 엄마가 나를 갓이는(가지는) 때, 갓사돈(?), 나물매(나물매) 갓추어(갓추어) 놓고

특히, 부사 ‘갓’을 백석은 그 고장말(방언)로 보이는 ‘가제’로 썼다. ‘가주(평안)’, ‘가즈·가지(함경)’라고도 한다.

어데서 쫓쌀알만한 알에서 **가제**(갓) 깨인 듯한 말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 없어진 꿈(꿈)으로 와서 아물걸린다(아물거린다) <수라(修羅)>(사슴, 1936, 1, 20.)

우리말 형태소에 ‘갓’은 부사 ‘갓’과 접두사 ‘갓-’이 있다.

갓 [부사] 바로 금방, 금방 새로, *갓 시집온 여자, *갓 태어난 아기, *갓 빛은 술,

갓- [접두]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따위의 나이를 나타내는 수사 앞에 붙여) ‘바로’, ‘막’, ‘겨우’의 뜻을 나타냄, *갓-스물, *갓-서른, *갓-쉰,

사전 올림말에 ‘갓(부사)+명사’ 형식의 결합어는 드물다. 북의 사전에서 하나를 볼 수 있다. 1주 사전 외 어휘 조사가 더 필요함.

갓병아리 [갓+병아리] [명] 갓 깨나온 병아리, <현대조선말사전>(북, 1969), <조선말대사전>(1992) 1주 형태소 분석은 필자가 넣음.

우리말 형태소에 ‘갓’은 명사 ‘갓’과 접두사 ‘갓-’이 있다.

갓*1 [명] ① 모물(毛物), ② ‘물건’의 옛말, <문세영>

갓*2 [명] <옛> 가지(나뭇가지),

갓*3 [부] 조금 전, 막, <문세영> [참고] <문세영>은 ‘갓밤이’도 ‘갓밤이’로 올렸음.

갓- [접두] ‘가족’, ‘털가족’을 나타냄, *갓-신, *갓-웃, *갓-저고리, *갓-바치, *갓-플, [참고] 갓<옛말>.

‘갓+~’ 형식의 단어는 주로 ‘가족붙이 물건’, ‘가지다’, ‘부류(가지)’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백석이 쓴 ‘갓사돈’은 그와는 달라 보인다. 위에 보인 ‘갓*3<문세영>’을 따른다면 ‘갓사돈’을 오늘날 표기의 ‘갓사돈’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 부사 ‘갓’의 북방 지역어 ‘가제’, ‘가주’, ‘가즈·가지’를 보면 <문세영>처럼 역시 ‘갓’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백석이 그의 시에 ‘갓’과 ‘갓-’을 가려서 썼으며, ‘새사위’와 같이 ‘새사돈’이라 하지 않고 ‘갓사돈’이라 한 데에는 ‘갓사돈(새사돈)’이 아닌 딴 뜻의 말로 쓴 것이 아닐까?

역시 드물지만, 북의 사전에 ‘갓+~’ 형식의 단어에서 어간 ‘갓-’이 ‘가지, 결가지’의 뜻으로 쓰인 올림말이 있다.

갓바리 [갓+바리] [명] 어린 가지가 서너 대 벌어져 난 산삼, 단위로도 쓰인다.

*세 **갓바리**, *네 **갓바리**, <현대조선말사전>(북, 1969), <조선말대사전>(1992)

1주 ‘갓바리’는 어근 ‘갓-’에 접미사 ‘-바리’가 붙은 말. ‘-바리’는 ‘군-바리’, ‘하-바리’처럼 특정한 성질이나 신분을 지닌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말, 사람의 경우, 좀 속된 뜻빛깔을 띤다.

제주 지역어에 ‘**가지사돈**’이 있다. ‘가지사돈’이라면 ‘결사돈’이 떠올라지는데 ‘결사돈’으로 전해진다. <겨레말큰사전> 지역어 팀이 확인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가지사돈**’을 ‘당사돈(친사돈)’과 대비시켜 ‘**결사돈**’이라 한 이도 있고, ‘부찌사돈(붙이사돈)’과 동의어로 ‘**결사돈**’이라 한 이도 있었다. (2003, 3, 20.)

북의 ‘갓바리’처럼 백석시의 ‘갓사돈’이 ‘가지사돈’이라는 뜻으로 친사돈이 아닌 방계 사돈, 곧 ‘결사돈’을 이룬 말이 아닐는지.

‘재당과 초시’, ‘문장 늙은이와 더부살이 아이’의 관계처럼 약간 격이 다른 대칭어 열거로, ‘새사위’에 직접적인 ‘새사돈’이 아니라 ‘결사돈’을 짝지어서 모닥불을 쪼이는 대상의 외연을 더 넓혀 아우름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갈이다’와 ‘방요’

여우가 우는 밤이면

잠 없는 노천네들은 일어나 팻(팻)을 **갈이다 방요**를 한다

여우가 주둥이를 핥하고 우는 집에서는 다음날 으레하(으레이->으레) 흉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 <오금당이라는 꿈(꿈)>(사슴, 1936, 1, 20.)

둘째 문장의 ‘갈이며’와 ‘방요’에 관해서다.

그 동안 이 문장을, 잠 없는 늙은 여인들이 “팻을 뿌리고 방뇨를 한다”, “팻을 마당에 뿌려 갈면서 방뇨를 한다”로 풀이했다. 두 해석은 팻을 뿌리고 방뇨(오줌누기)를 하는 것을, 민간 신앙에서 흉사를 막고 악귀를 쫓아내는 행위로 보았다.

평안 등지의 방언에 곡식을 키로 ‘까부르다’, ‘까불다’를 이르는 ‘**까리다**’가 있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에 거두어 실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북 5도 군지 등의 지역어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시의 팻(팻)을 ‘**갈이며**’는 팻을 키로 ‘까부르며’로 볼 수 있다.

‘방요’는 ‘방뇨(放尿)’를 잘못 적은 것일까? 백석의 시에서 오줌과 관련된 단어에 ‘童尿賦(동뇨부)’가 있다. 오줌싸개 아이에 관한 시 제목이다. 백석은 한자 ‘尿’를 한글로 ‘뇨, 요’로 적지 않았다. ‘방요’가 ‘방뇨’라면 한자 ‘放尿’로 적었을 법 하다.

이 ‘**방요**’를 <겨레말큰사전> 북측 편찬 위원장 문명호님은 ‘민요조의 군소리’로 해석했다. 필자는 그 해석을 좇아 ‘일하면서 읊조리는 민요’의 뜻으로 ‘方謠(방요)’를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이런 한자 단어가 쓰인 문헌은 찾지 못했다. 믿음이 별난 신자가 성령의 기운을 받아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을 한다”고 한다. “방요를 한다”도 비슷한 맥락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싶다.

■ 새로 찾은 겨레말

염상섭 소설의 미등재어와 새어휘

_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부 부장



횡보(橫步) 염상섭의 소설은 '순수 국어의 보고'로 평가될 만큼 '경아리를 통해 서울 중류계층의 삶을 매우 실감나게 그리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지역어의 독특한 소설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미등재어들이 겨레말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겨레말큰사전>은 <만세전>, <삼대>, <취우>,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150여 편의 염상섭 소설을 대상으로 새어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준국어대사전>(1998)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되지 않은 미등재어 2,000여 개가 조사되었다.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정 지침에 준하여 이들 2,000여 개의 어휘들을 1차 선별한 결과 200여 개가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후보로 선정되었다.

그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게쟁이, 가리막, 가방잡이, 가삼츄레하다, 개발괴발, 개장집, 게걸음하다, 고깃물, 과자통, 구자들, 기생에미, 기예, 꼬투머리, 끝동생, 냉면집, 노란자, 노름채, 노젓냥, 농년, 담배꽂지, 닭치다, 대삿집, 대식구, 대짜고짜, 도둑술, 돈봉투, 동릿집, 된장국수, 뒷소식, 들볶아치다, 등록비, 똥대가리, 만개되다, 목내이, 몽롱히, 박다, 반울음, 본가살이, 부모형제, 뽕사다귀, 사돈영감, 사랑편지, 색봉투, 섯골짜기, 생일집, 생철갑, 선뜻선뜻하다, 쇠눈갈, 쌀물, 머찌니저찌니, 여자웃, 엮어지다, 옥돌장, 이등차, 이жат돈, 입원료, 자릿속, 재수사망, 종이갑, 주문도리, 찌부러들다, 천석지기, 첫찌, 코쌈지, 푸르락볶으락하다, 해우채, 향그레하다, 헛공사, 혼자살이, 화평스럽다, 휘어잡히다

다음은 염상섭 소설 <취우>의 한 구절이다.

인젠 **{가방잡이}** 신물이 내 그 보스톤백 보셨지? 《염상섭: 취우》

위의 용례에서 나타나는 '가방잡이'는 '윗사람의 가방을 들고 따라 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가방잡이'는 일제강점기 때 쓰였던 '가방모찌'와 같은 말이다. '가방모찌'는 '가방'과 일본어 '모찌'가 결합된 말로, '모찌'는 '들다'의 의미를 갖는 일본어 동사 '모츠(持つ)'의 명사형 '모치(もち)'이다. 즉 '가방모찌'는 일본어 '가반모치(かばんもち)'와 같은 말이다. '가반모치'는 '상사의 가방을 들고 수행함.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 곧 '비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상사에게 아첨하며 쫓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우>에 나타나는 '가방잡이'는 아마도 일본어 '가반모치'의 직역어로 판단된다. 비록 '가방잡이'가 직역어이기도 하지만, 염상섭의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오늘날에도 '가방잡이'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국어사전에든 '가방잡이'가 실려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개념은 존재하나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일본어 '가반모치'의 직역어라는 점에서 '가방잡이'는 그리 탐탁한 말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의 대상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말이다. '가방잡이'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가방잡이'를 살려 쓰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염상섭 소설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실려 있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연재된 소설 <미망인>의 한 구절이다.

명신이 모친이 손주말과 **{된장국수}** 쏘석이고 앉았는 것을 보고, 홍식이는 "아 참 아즈머니께 한 그릇 시켜다 드리는걸!" 하고 인사를 하였다.



위의 예문에 나타난 '된장국수'는 아직 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이다. '된장국수'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북측과 공동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먹어 본 적이 있는 음식이 떠올랐다. 여러 가지 야채에 된장을 넣어 볶은 된장 소스를 국수 면발 위에 올린, 자장면과 흡사한 음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염상섭 소설어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더욱 그럴 듯해 보인다. <염상섭 소설어 사전>에서 '된장국수'를 '된장을 풀어서 말거나 비벼 놓은 국수'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을 보면 <염상섭 소설어 사전>의 '된장국수'에 대한 뜻풀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숙이는 궤남이를 끌고 청요릿집에 가서 **{된장국수}** 두둑히 먹여 가지고... 《염상섭: 의처증》
그러나 너무나 돈에 알뜰한 여자가 **{된장국수}** 말이 없어도, 탕수육만 해도 객적은 과용이라고,
이제까지 합부로 시킬 것을 허락지 않던 것이 생각나 ... 《박태원: 천변풍경》
오늘은, 가치 청요리래두 먹기루 허구... 순이는 탕수육허구 **{된장국수}** 좋아허니까, 《박태원: 천변풍경》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나 염상섭의 <의처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요릿집'에 가서 사먹는 음식인 '자장면'을 이르는 말이다. 아마도 '된장국수'는 '炸醬'을 '중국 된장'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된장국수'는 <겨레말큰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된장국수 [된 : 장국수/된 : 장국수] (-醬--) 團
예전에, <자장면>을 달리 이르던 말. | ~.
[되---+장+국수]

<겨레말큰사전>은 이와 같이 현재는 널리 쓰이지 않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방잡이'나 '된장국수' 등과 같은 어휘들을 발굴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이러한 노력은 겨레말의 외연을 넓힐 뿐만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보구래와 왜보구래

김영덕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대>)과 <조선말대사전>에는 규범어(표준어와 문화어) 외에 다수의 지역어도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어 가운데에는 뜻풀이가 잘못되었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에서는 형태 분석이 가능한 모든 지역어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뜻풀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집필자나 조사자를 통해 뜻풀이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겨레말큰사전>은 뜻풀이를 깊고 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의 예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뜻풀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강원 지역어이다.

왜-보구래 [명사] [방언]
'쟁기1①'의 방언(강원).

'보구래'는 '보구래, 보가래' 등과 함께 '쟁기'를 의미하는 강원 지역어이다. <표대>에 '보구래'가 '쟁기'의 강원 지역어로 실려 있는데 같은 사전에 '왜보구래'가 '쟁기'로 풀이된 것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왜보구래'는 [왜+보구래]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구래' 앞에 '왜'가 결합되어 있는데도 '보구래'와 '왜보구래'가 모두 '쟁기'로 풀이되어 있는 것이다. '형태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는 것이 사전 뜻풀이의 일반적 전제라고 한다면, '보구래' 앞에 결합된 '왜'는 무엇일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간장, 왜전골'의 '왜'이다. 이때 '왜'는 '일본'의 뜻을 나타내는 '왜(倭)'이다. '왜보구래'의 '왜'가 '일본'을 뜻하는 '倭'라면, '왜보구래'는 '조선쟁기와 대응하는 말이다. 우리의 전통 쟁기인 '조선쟁기'가 통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든 것이라면, '왜쟁기'는 쇠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만든 것이다. 일명 '개량쟁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왜보구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가 무엇 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강원 지역의 현지 집필자에게 확인한 결과, '왜'는 '일본'을 뜻하는 '왜'와는 관련이 없었다. '왜보구래'의 '왜'는 '하나, 혼자'의 뜻을 더하는 접사 '외-'와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표대>에 실려 있는 '왜보구래'는 '외갓집'의 일상적 발음이 [웨갈집]인 것처럼, '외보구래[웨보구래~왜보구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은 형태 표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올림말을 '외보구래'로 수정하고, [외보구래/왜보구래/웨보구래]와 같이 발음 정보를 제시한다.

'외보구래'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겨리)'인 '쌍보구래'¹⁾와 구분하기 위해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호리)', 또는 '보습이 두 개 달린 쟁기'인 '쌍보구래'와 구분하기 위해 '보습이 하나인 쟁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표대>의 '왜보구래'의 뜻풀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외보구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쟁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 지역에서 일반적인 '쟁기'를 지칭할 때에는 '보구래'라고 하고, '쟁기'를 '쌍보구래'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외보구래'라고 한다. 그러므로 <겨레말큰사전>에서 '외보구래(왜보구래)'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외보구래 [외보구래/왜보구래/웨보구래] [명]
① 보습이 두 개인 쟁기에 상대하여 보습이 하나인 쟁기를 이르는 말. (강원) | **외보구래** 처막에 나뭇기 비털 마채선 다 삭았더니.
②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에 상대하여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이르는 말. (강원) | **외보구래** 는 보기 쉬와도 쌍보구래 보는 것도 쉽잖어.
[참고] 쌍보구래.
[외-+보구래]



겨리(양우래)



호리(단우래)

지역어의 뜻풀이에서 형태소 분석은 '외보구래(왜보구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 결과가 기존 사전의 풀이와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똥구리 [명사] [방언]
'그루터기'의 방언(경남).

'개똥구리'는 '개-'와 '똥구리(둥구리)'가 결합된 말이다. '둥거리, 둥구리'는 모두 '그루터기'의 경남 지역어이다. 따라서 '개똥구리'가 단순히 '그루터기'와 대응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현지 집필자의 확인 결과 '개똥구리' 또한 단순히 '그루터기'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었다. '보통보다 질이 떨어지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개-'가 결합된 '개똥구리'는 '바삭 말라서 바슬바슬 부서지기 쉬운' 그루터기이다. 따라서 '개똥구리'의 뜻풀이는 <겨레말큰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개똥구리 [명]
말라서 쉽게 부서지는 그루터기. (경남) | 군불 넣거로 **개똥구리** 주우로 가자. [지역] 고주배기.
[개-+똥구리(<둥구리)]

'외보구래(왜보구래)'와 '개똥구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뜻풀이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와 해당 뜻풀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그 정확한 뜻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쌍보구래'는 <겨레말큰사전> 새어휘임.
2) 위의 원고는 확정원고가 아님을 밝힌다.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새로 찾은 겨레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현장

■ 남녘말 북녘말

극성스럽다

_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우리는 극성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부동산'을 검색하면 '극성'이라는 말이 같이 딸려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에 나온 치맛바람 역시 '극성'과 아주 잘 어울린다.

'극성'이 부동산과 어울리면 부동산 투기가 되고, 극성이 치맛바람과 어울리면 어머니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피해가 된다.

이처럼 남쪽에서 '극성스럽다'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용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해 여름은 유별나게 {극성스러운} 불볕더위속에 가뭄마저 심하였다. <저자:이동하> <출전:폭력요법> <지역:남>
- 지금 법소에서 접주님을 뒤통하는 꼴은 {극성스런} 시업씨가 머느리 뒤통하는 꼴도 아니고 성미 고약한 훈장이 학동 뒤통하는 꼴도 아닙니다. <저자:송기숙> <출전:녹두장군> <지역:남>
- 돈 버는 데는 억척스럽고, 자식을 공부에는 {극성스럽던} 그의 모친도 나이가 든 탓으로 막내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데다, 누나와 형들마저 곁에 없어서 그는 만판으로 문제학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김원우> <출전:살아 남을 친구> <지역:남>

그럼 북은 어떨까? 남쪽과 같은 의미로 쓰일까? 용례를 보면 남쪽과 달리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저 환갑직전의 나이에든 젊은이를 이상 농장일에 {극성스러운} 형국 반장, 그는 지금 중앙 기관에서 일하는 마들에게로 가면 여행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저자:한경> <출전:맑은 아침> <지역:북>
- 아버지의 {극성스런} 손길에 잘 다스려진 산림은 질서 정연한 위병대의 서렬을 방불케 했다. <저자:안선옥> <출전:그들이 가는 길> <지역:북>
- 부부는 ... 숲을 가꾸어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극성스럽게} 일하고 또 일했지요. <저자:양익선> <출전:푸른 사랑> <지역:북>

그래서 남과 북의 사전에서도 '극성스럽다'의 풀이는 차이가 난다.

| 사전 | 풀이 |
|---------|-----------------------------------|
| 표준국어대사전 |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드세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데가 있다. |
| 조선말대사전 | 몹시 미약하고 억척스러운데가 있다. |

'극성스럽다'와 같이 남과 달리 북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어휘를 더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어휘 | 의미와 용례 |
|-----|-----------------------------------------------------------------------------------------------------------------------------------------------------------------------------------------------------------------------------------------------------------------------------------------------------------------------------------------------------------------------|
| 젊은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북은 남쪽과 달리 비하의 의미가 없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용례 할아버지는 지금도 신문에서 젊은이 {젊은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가래질을 하며 질통을 지고 내달리는 그림을 물릴 줄을 모르고 바라보는 것이다. <저자:석인해> <출전:할아버지> <지역:북> |
| 방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북은 불법행위를 도와 준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고 '도움'의 의미로 사용된다. · 용례 윤성학의 정력적인 {방조} 밑에 회전로, 특수 진공 장치, 송수관 보수 공사는 열흘도 안되는 사이에 완전히 끝났다. <저자:리종렬> <출전:해빛을 안고온 청년> <지역:북> |
| 소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남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나 북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 지닌다. · 용례(금) 주먹 같은 글자들을 꺾꺾 눌러쓴 대형 속보글은 하나같이 집단체조에 참가한 학생들의 들끓는 열의와 아름다운 {소행들을} 찬양하고 있었다. <저자:한기석> <출전:꽃바다> <지역:북> · 용례(부) 남호는 아버지의 민망스러운 {소행} 때문에 오성칠과 윤씨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저자:김수범> <출전:영원한 미소> <지역:북> |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새로 찾은 겨레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북말 복원말 · 겨레말 연장

겨레말 현장

겨레말큰사전 사전 편찬 도구

최준호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이하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사전 편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전 제작에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 프로그램 <겨레말웍스>와 <원고집필기> 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전 편찬에 필요한 도구와 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존 사전 검색기

사전 편찬자는 집필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출판된 사전을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 겨레말큰사전의 기존 사전 검색 프로그램은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우리말큰사전> 등의 사전을 참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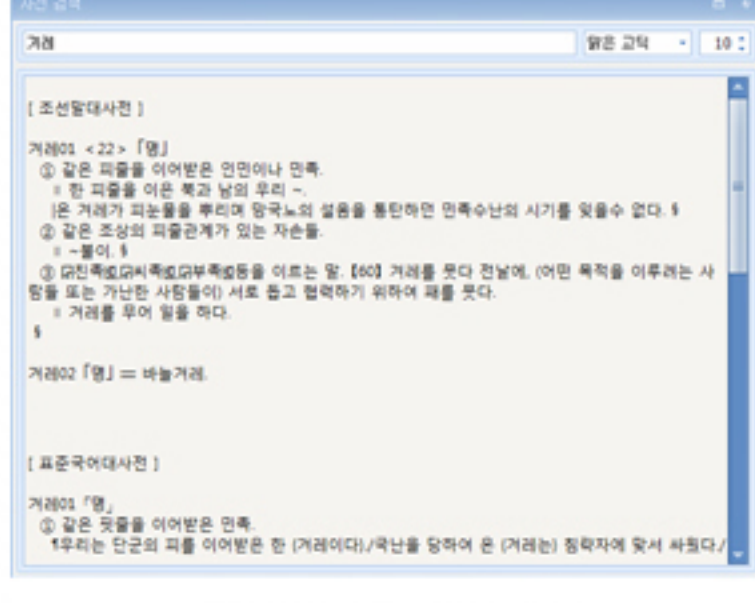


그림 1 <겨레말웍스> 사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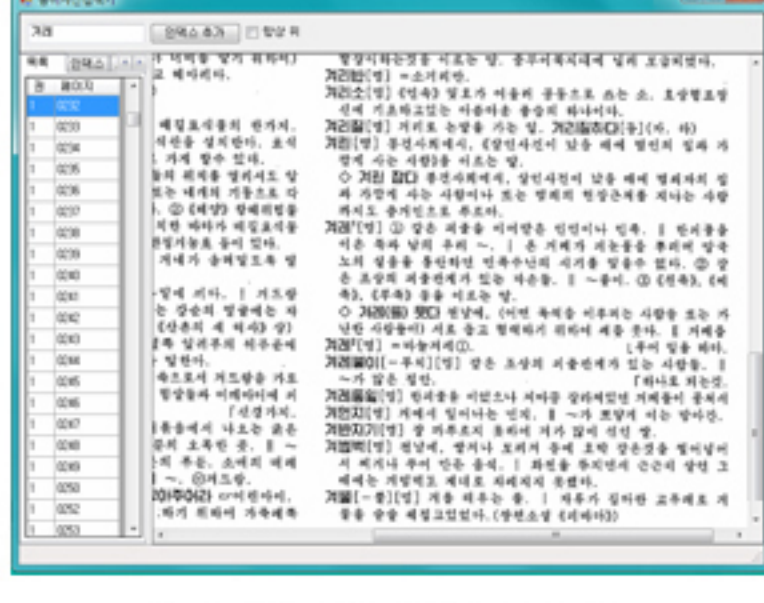


그림 2 <조선말대사전>종이 사전 검색기

겨레말큰사전의 또 다른 사전 검색기인 <조선말대사전>종이사전검색기는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의 스캔 데이터를 이미지로 검색하도록 되어있다. 스캔 데이터 검색 방식은 올림말 인덱스를 해당 페이지의 스캔 데이터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사전 텍스트 데이터 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할 필요도 없어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텍스트로 구조화한 자료의 검색과는 달리 해당 페이지에서 올림말을 찾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종이 사전을 직접 검색하는 것 보다는 능률적이다. 또한 종이사전의 레이아웃대로 앞, 뒤 올림말을 쉽게 볼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도 있다.

2. 용례 검색기

용례 검색기는 말뭉치에서 원하는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보여준다. 사전 편찬에는 올림말 선별과 뜻풀이 확인, 예문 작성에 용례검색기를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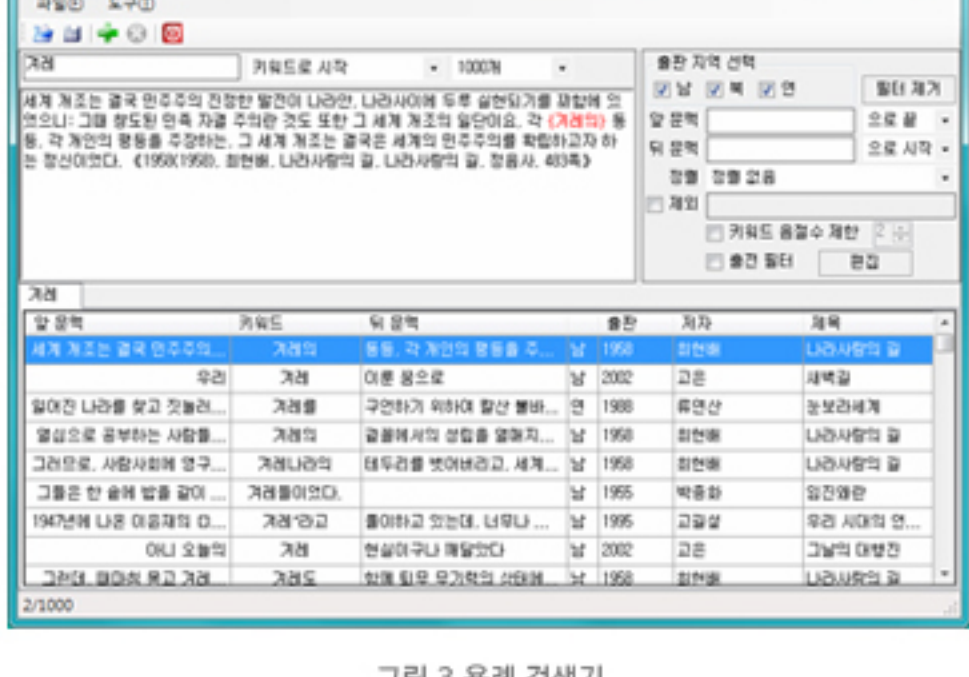


그림 3 용례 검색기

<겨레말큰사전>은 뜻풀이 용례로 남한, 북한, 그 밖의 지역의 용례를 균형있게 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뭉치에 출전의 지역이 태깅되어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남한 용례, 북한 용례, 연변 지역 용례 등으로 필터링하여 볼 수 있다. 용례 검색 결과물은 키워드, 키워드 앞 어절, 키워드 앞 어절의 역순, 키워드 뒤 어절, 출전의 출판 연도별로 정렬할 수 있고, 키워드를 포함한 어절의 음절 수, 키워드를 포함한 어절에서 제외할 단어를 지정하여 필터링할 수 있어서 키워드와 관련 없는 용례를 손쉽게 제외하고 검토할 수 있다.

3. 집필 관리 도구

겨레말큰사전의 사전 집필 도구 <겨레말웍스>에는 남북 올림말분과 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올림말로 등재하기로 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 <겨레말큰사전>은 새로 발굴한 어휘 이외에 기존 사전에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어휘를 선별하여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존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원고를 작성하고 교열할 때 반영 여부를 체크한 목록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어휘의 반영 여부는 남북 공동 편찬회의를 통해 남북 올림말 분과에서 각각 검토한 결과를 합의함으로써 결정하지만, 원고를 집필하거나 교열하는 단계에서 해당 어휘를 담당하는 편찬자가 반영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겨레말웍스>는 이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림 4 <겨레말웍스>의 사전 반영 여부 확인

작성한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관리할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에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집필 과정은 남과 북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이유로 원고를 집필하는 데 많은 교차 검토 과정을 거친다. 또한 북측 작업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측과 동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원고 관리는 남측 편찬사업회에서 맡아서 하고 남북 공동회의를 통해 교환하게 되는 북측 원고는 목록과 함께 입력/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는 통합된 원고 관리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세부적인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원고 집필기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공통으로 원고를 입력할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집필기는 남북이 합의한 XML 스키마 형식으로 사전 원고로 저장한다. XML은 사용자가 직접 구조를 정의해서 쓸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이다. XML은 여러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공하기 쉽고 여러 상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의 속구조(미시구조)가 미리 약속한 XML 엘리먼트(element) 혹은 어트리뷰트(attribute)로 정확하게 대응하여 저장되므로 검색과 교열이 무척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남과 북이 합의한 자체 스키마를 사용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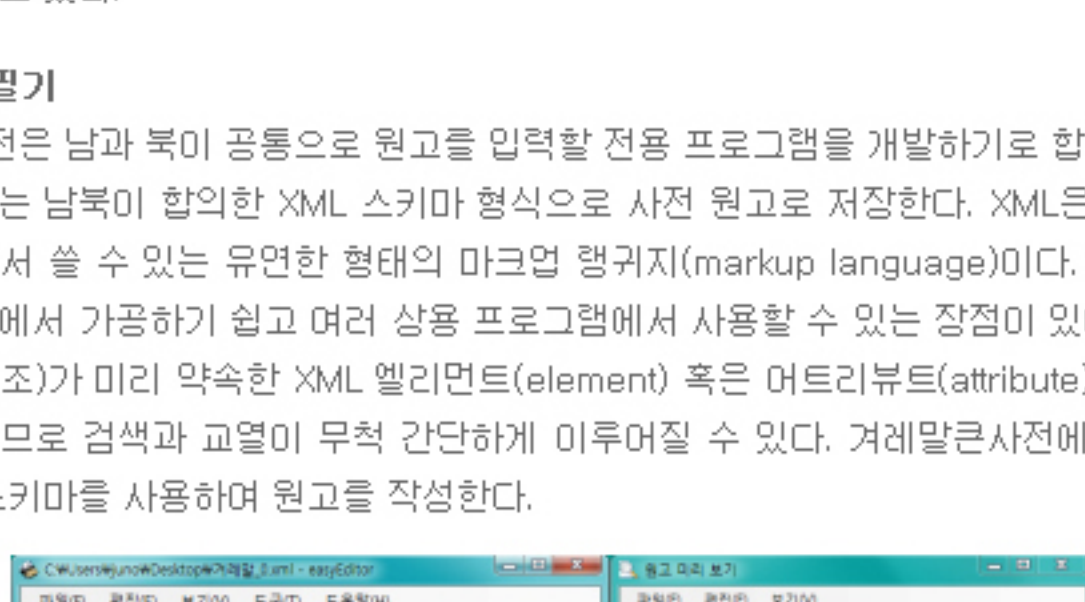


그림 5 원고 집필기

원고 집필기는 다양한 단축키와 사용자 지정 상용구를 등록하는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여 원고의 집필과 교열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 집필기는 사전 원고를 출판 형식으로 미리 볼 수 있다. '속구조 : 원고 내용'의 입력 방식은 속구조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지만, 원고를 교열할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 원고 집필기는 원고 입력과 동시에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집필지침에서 정한 종이사전 인쇄 형태로 미리 보여준다. 원고를 교열할 때에는 종이사전 인쇄 형태를 모아 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오류가 있는 원고를 클릭하여 집필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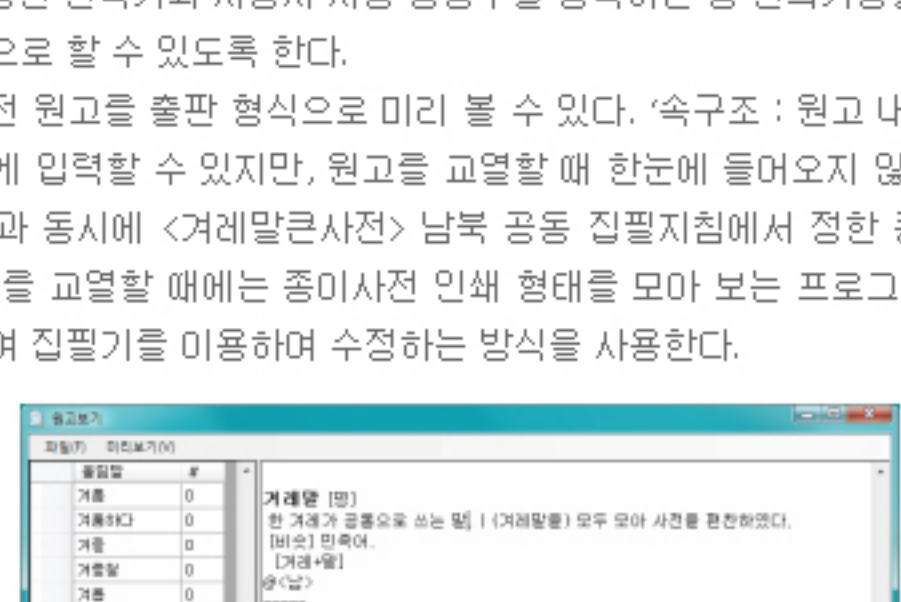


그림 6 원고 검토 및 교열

사전 집필 도구는 단순히 사전 원고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전을 만드는 전체 공정을 함께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전 집필 도구는 앞으로 남은 사전 집필작업에 따라 그 기능을 추가하고 더욱 편리하게 수정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3월 30일 한국사전학회 제22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편집하여 실었습니다.